

스포츠로 행복한 전남...전남도민 '하나로'·전남체육 '미래로'

전남체전 '천년의 빛' 영광서 '팡파르'

22개 시군 7천여명 참가...육상 등 24개 종목 나흘간 열전



전라남도체육대회

올해로 63회를 맞은 전남도체육대회가 '뛰어라! 위대한 영광, 열려라!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17-20일 '천년의 빛'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도내 최대 스포츠행사로 엘리트체육인과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축제의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 7천3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축구, 배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신설된 족구, 전시 종목인 게이 트볼 등 2개 종목에서 고향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2009년 제48회 대회 개최 이후 15년 만에 영광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스포츠대회는 '성공·행복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전', '화합·희망체전'을 목표로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영광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완료했다.

이어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영광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정비, 숙박업, 음식점업 정비 등을 통해 선수단 불편을 최소화,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군 홍보존, 부대행사존, 스포츠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편, 17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개회식은 시·군별 선수단입장을 시작으로 의식행사(개회선언, 환영사, 기념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체육인헌장 낭독, 선서)와 주제공연인 태권무지킴이,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화점화 최종 주자로는 영광이 고향인 은혜석 전 서울 삼성 썬더스 감독이 나서며, 개회식 후 축하콘서트는 다



전남도민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영광군에서 열린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이나믹듀오, 다비치, 육종환 밴드, 요요미, 반가희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의 근간이 되는 도내 최대의 체육행

사인 만큼 안전하고,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22개 시·군 선수단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2024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한 광주교통공사 유도팀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이주연 양구평화컵유도 '금빛 매치기'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황수련과 이주연이 2024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수련은 지난 15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52kg급 결승에서 김지연(동해시청)을 팔자로 누워끼기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수련은 8강전서 이라검(포항시청)을 상대로 안다리걸기 절반과 되치기 절반을 때내며 한판승을 거둔 뒤 준결승서 정나라(안산시청)를 안아조르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황수련은 결승서 김지연과 지도 1개씩을 주고 받은 뒤 팔자로 누워끼기

승을 성공하며 한판으로 이겼다.

이주연은 -63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주연은 8강전서 이지원(부산북구청)을 윗누르기 한판승으로, 준결승서 김윤(동해시청)을 반칙승으로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주연은 결승에서 채정아(포항시청)를 상대로 안다리걸기 절반과 되치기 절반을 때내며 한판승을 거둔 뒤 준결승서 정나라(안산시청)를 안아조르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57kg급 조운의와 -70kg급 김혜미가 각각 동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박희중기자

"1년 만의 챌린지 투어...부활의 신호탄 쏘겠다"

'청각장애 테니스 스타' 이덕희, 광주오픈 본선 진출

"장애 넘어선 도전, 그것만으로도 행복"

'청각장애 테니스 스타' 이덕희(세종시청)가 올해 첫 ATP(프로테니스협회) 챌린지 투어 출전에서 본선 티켓을 거머쥐며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특히 ATP 광주오픈 챌린지 2024 예선 1회전과 2회전에서 모두 접전 끝에 승리를 챙기며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선사했다.

이덕희는 지난 15일 광주 진월국제 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광주오픈 예선 2회전에서 블레이크 엘리스(Blake Ellis·호주·394위)에게 2-1(6-7, 7-6, 6-4) 역전승을 거뒀다.

이덕희는 이날 경기 후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 이겨서 기분 좋다. 곧바로 시작하는 본선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아직 컨디션이 50%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 본선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22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광주 오픈에 복귀했다. 지난해 대회 당시에는 광주로 내려와 대체 선수(ALT)로

참가를 노렸으나 끝내 순번이 돌아오지 않으며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다. 반면 올해는 부산오픈 대신 광주오픈에만 출전한다.

이덕희는 "ATP 단식 랭킹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챌린지 투어를 오랜만에 뛰게 됐다"며 "광주오픈에서 와일드카드를 주셔서 감사하다. 부상 없이 대회를 치르면서 준결승을 넘어 결승까지 오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번 대회를 부활의 발판으로 삼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덕희는 "지난해 데프 테니스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데플림픽 출전권을 땀"이라며 "항상 비장애인들과 경기를 뛰다 보니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테니스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오픈에서 32강, 부산오픈에서 예선 1회전의 성적을 거뒀던 만큼 올해 첫 챌린지 투어인 광주오픈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노리고 있다.



이덕희가 지난 15일 열린 ATP 광주오픈 챌린지 2024 예선 2회전에서 블레이크 엘리스(호주)와 경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차근차근 랭킹 포인트를 획득해 챌린지 투어 출전 안정권으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덕희는 "지난달 ITF(국제테니스연맹) M15 니시-도쿄에서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준우승을 했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 목표를 정했다. ATP 단식 랭킹 200위 안에 진입해서 챌린지 투어를 뛰고, 부상 없이 선수 생활

을 길게 이어가며 100위 안에도 진입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비장애인들과 경쟁에 도전해 보라"고 강조했다. /박희중기자

고진영 "코르다 독주 막아라"

LPGA 시즌 첫 메이저 세브론 챔피언십 19일 개막...김효주·김세영 우승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즈의 더 클럽 칼턴 우즈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엔 세계랭킹 30위 이내 선수가 빠짐없이 출전하는 등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해 우승 경쟁을 펼친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현재 세계랭킹 1위인 넬리 코르다(미국)다.

코르다는 지난달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포드 챔피언십에 이어

이달 초 T-모바일 매치플레이까지 제패하며 LPGA 투어 대회 3개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1월 드라이브온 챔피언십까지 포함하면 자신이 출전한 대회를 기준으로는 4개 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1월 2024시즌 개막 이후 8개 대회가 열리는 동안 아직 한 번도 우승이 없는 한국 선수들이 코르다의 독주를 막고 '메이저 무관'도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22년 6월 K

PMG 여자 PGA 챔피언십의 전인지 이후 2년 가까이 지났다.

이번 대회엔 2019년 우승자 고진영이 한 달 넘는 공백을 깨고 돌아와 선봉에 선다.

세계랭킹 6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고진영은 앞서 이번 시즌 2개 대회에만 출전했다. 2월 혼다 LPGA 투어 브랜드에서 공동 20위, H 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선 공동 8위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김효주, 김세영, 유해란, 전인지, 지은희, 김이림, 최혜진, 이정은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LPGA 투어에서 6승을 올린 전 세계랭킹 1위 유소연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친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19-21일 홈 NC전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 시리즈'

20-21일 승리 기원 릴레이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9-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아이엠프 스튜디오(IAB STUDIO) 브랜드 데이 시리즈'로 치른다.

선수단은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어로 치러지는 이번 3연전 동안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이날 선보이는 유니폼은 팀 상징인 검정색과 노란색을 메인 색상으로 사용해 디자인했다. 상의, 하의 모두 검은색을 사용해 일체감을 강조했고, 노란색을 포인트로 활용해 호랑이의 강렬함을 표현했다. (사진)

이와 함께 KIA와 아이엠프 스튜디오는 이날 경기장을 찾는 팬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열어 '아이엠프 스튜디오 타이거즈 데이'를 선물한다.

승리를 기원하는 릴레이 시구 이벤트도 진행된다.

20일 경기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뜻 깊은 시구 행사를 마련했다. 타이거즈 '핀팬' 이민우씨 부자가 이날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와 시타를 한다. 21일 경기는 광주 출신 아이돌인 펜타곤의 우석이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를 한다. /주홍철기자



광주지역 유소년 축구 명문클럽인 JK 풋볼클럽 U-12 선수단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시 대표팀 선발전 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JK 풋볼클럽 제공>

JK 풋볼클럽, 소년체전 광주대표 선발

광주 유소년 축구 명문클럽인 JK 풋볼클럽 U-12 선수단이 제53회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에 선발됐다.

JK 풋볼클럽은 지난달 광주 보라매 축구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지역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선발전에서 1차전 우승을 차지한 JK 풋볼클럽은 2차전 우승팀 광주신화 유소년축구단과의 최종 3차 결승전에서 정태준(문우초 6)의 멀티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2013년 창단한 JK 풋볼클럽은 주전

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투지에 지극근 감독의 지도력이 더해져 값진 우승을 일궈냈다. 체육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인 지 감독의 열정이 녹아든 JK 풋볼클럽은 어린 학생 축구선수들의 꿈을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 감독은 "모든 경기에서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과 학부모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팀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기자